

## 지금은 바야흐로 해외직구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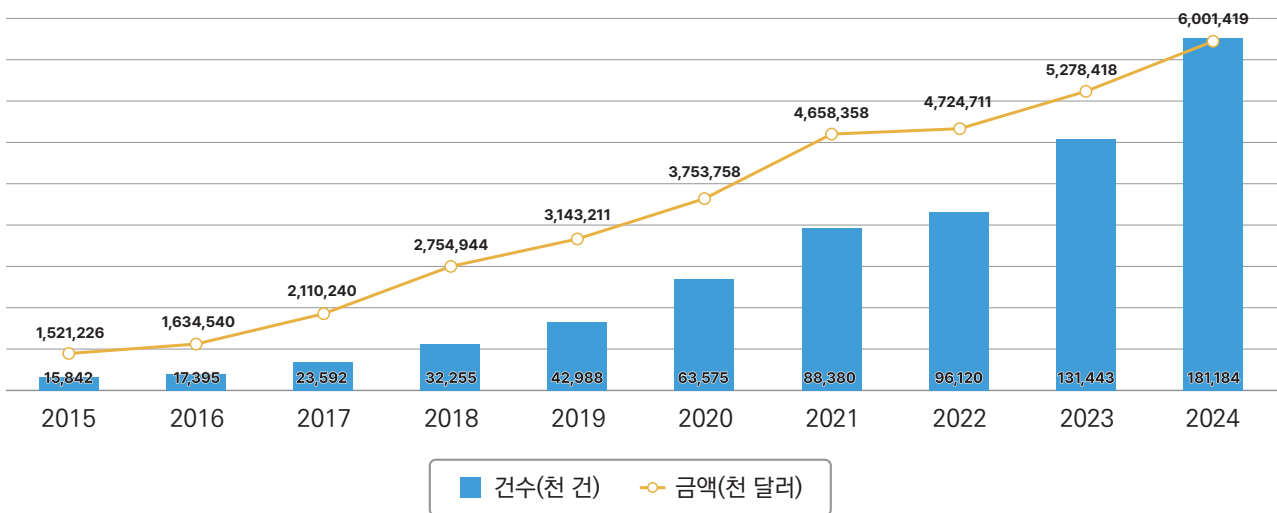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 금액은 55억 2,000만 달러로 1분기(53억 5,000만 달러)보다 약 3.3% 많았다. 이는 해외여행이 감소했음에도 해외직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1분기 779만 7,000명에서 2분기 676만 7,000만명으로 13.2%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1분기 13억 5,000만 달러에서 2분기 15억 5,000만 달러로 15.2% 증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온라인 쇼핑 해외직접구매는 10억 4,000만 달러로 1분기(8억 4,000만 달러) 대비 2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조선비즈, 2025.8.26.

한 뉴스 보도<sup>1)</sup>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외 직접 구매로 거래한 금액이 무려 6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한 교수는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 규모로는 한국이 세계 5위이지만, 인구 대비로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셈'이라고 언급했죠. 그리고 2025년 한국은행의 자료에서는 2025년 2분기 동안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금액이 55.2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과 함께, 특히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의 수는 줄었는데 카드 해외 사용 금액이 늘어났다는 점을 흥미로운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자료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인으로 해외 직접 구매, 즉 '해외직구'를 꼽았습니다.

그림 1 2015~2024년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1) 조선일보, 「“국내가 더 비싸, 글로벌 호구”... 해외직구는 한국판 ‘소비자 운동’」, 2024.5.21.

## 교육과정

- 중학교 「사회2」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화
- 고등학교 「경제」 국제 경제

관세청은 2024년 기준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건수 즉, 해외 인터넷 쇼핑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수가 전년보다 37.8% 증가, 그 금액은 13.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그림1 참고). 금액에 비해 건수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을 통해 물건의 개당 단가가 낮더라도 해외직구 물품 수가 늘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 통계 자료에서는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많이 한다는 점을 한결같이 보여줍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해외직구를 많이 하게 된 걸까요? 여러 배경과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같은 나이키 운동화라도 집 앞 백화점에서는 15만 원에 파는 것을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해외직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같은 제품인데 해외직구로는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해외에서 제품이 들어온다면 해당 제품에 관세도 붙고, 배송비도 붙을 텐데 말이죠. 그 모든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해외직구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갖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모든 물건에 관세가 붙는 게 아닙니다

해외직구에는 관세 정책이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본래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붙는 세금입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기는 것이죠. 마치 놀이공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는 것처럼,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관세라는 입장료를 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소액인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서 행정적 측면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소액 구매에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데,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해외직구 물품의 건수를 기준으로 99%가 이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니다. 반면, 동일한 제품이 백화점에 진열될 때는 어떨까요? 수입업체가 정식으로 통관 과정을 거칠 경우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면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물품 가격에 8~20%의 관세가 부과되고, 10%의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더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특정 상품에는 개별소비세\*가 추가되기도 해요. 이러한 세금 부담의 차이만으로도 벌써 해외직구와 국내 판매 제품 간에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중간 단계와 함께 사라지다

해외직구 물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유통구조의 차이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입 유통은 제조업체에서 수입업체로, 수입업체에서 도매업체로,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의 순으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이러한 다단계 구조를 거치며 단계마다 운송비, 창고비, 인건비, 그리고 각 업체의 이윤이 누적되어 최종 소비자 가격을 높입니다. 반면 해외직구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또는 제조업체에서 소비자까지 직접 연결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중간 유통업체들이 챙기던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국제배송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국제 특송 택배 회사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의 많

이 오갈수록 한 개에 들어가는 배송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죠. 관세청 통계를 보면, 특송\*\*으로 보내지는 물건 중 전자상거래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약 71%였고, 2024년에는 약 9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물건이 더 많아지니 택배 회사들이 한 번에 처리하는 양도 많아지고, 개당 배송비 부담도 예전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제 더 싸게, 그리고 더 빠르게 해외직구 물건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단순화된 유통구조로 유통 비용이 크게 절감된 부분에 직구 물량의 증가에 따른 개당 배송 비용 절감이 더해져 유통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져온 것이죠.

## 📱 환율이 올라도 결국은 해외직구

앞서 살펴본 관세와 유통구조에 앞서, 해외직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환율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온라인몰을 통해 해외직구를 하면, 달러, 유로화, 위안화 등 외화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직구의 가격을 크게 좌우하죠. 원화의 가치가 높을 때는 적은 돈으로도 물건을 살 수 있어서 해외직구가 유리해집니다. 반면에 원화의 가치가 낮을 때는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돈을 더 많이 내야만 하죠. 예를 들어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10만 원으로 100달러짜리 운동화를 살 수 있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했을 때는 같은 운동화를 사기 위해 15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1~2년 동안은 원-달러 환율이 1,302원에서 1,488원 사이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해외직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통상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해외직구가 줄어드는 것이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이를 상쇄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등 해외직구 극성수기가 도래했을 때의 물량 급증에 대비한 특별 통관 대책<sup>2)</sup>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물량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정부와 글로벌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 간 제품 안전 협약 체결 등으로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면서 사용자의 구매에 대한 신뢰와 편의성이 높아졌죠. 여기에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도 국내 물가는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미국 등 해외 온라인몰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강해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국내보다 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환율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지만, 물류 효율화나 소비자 보호 강화, 해외 온라인몰의 가격 경쟁력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한 것입니다.

**• 용어 정리 •**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건이나 활동에만 따로 붙는 세금입니다. 일반 생활용품보다는 사치품이나 골프장 등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입장권,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같은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돼요.

**\*\* 특송**  
 특송은 특급택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송업체는 관세법에 따라 세 관장에 등록된 업체이며, 이 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특송물품'이라고 합니다.

**\*\*\* 블랙프라이데이 (Black Friday)**  
 미국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다음 날 열리는 전통적인 대규모 세일 행사로,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온라인 세일 시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 관세청, 「관세청, 연말 극성수기 대비 '해외직구 특별 통관 대책' 시행」, 보도자료, 2024.11.7.



## ☎ 다양성이 만든 직구의 매력

이렇게 해외직구는 ‘가격’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직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를 단순히 ‘싸다’라는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연구(2023.6)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가격 경쟁력 외에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요인으로 꼽은 것은 ‘**상품의 다양성**’입니다. 국내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 예를 들어, 해외 한정판 운동화, 특별한 취향을 타는 소품, 일본의 특정 캐릭터 상품, 유럽 소규모 브랜드의 핸드메이드(handmade) 제품 같은 것들은 해외직구로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전자제품을 낚들보다 먼저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소비자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이겠죠. 또, 동일한 제품이라도 해외에서는 색상이나 크기가 더 다양한 경우도 있고요. 결국 해외직구의 매력은 가격에서 출발하지만, 그 이상으로 소비자들의 취향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 해외직구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서 심지어 제품이 다양하기까지 하다! 해외직구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위험과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점으로는 배송 지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이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때로는 통관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몇 주를 기다리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해야 할 때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배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반품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내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고장이 나거나,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으로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심지어 가짜 상품이나 모조품을 잘못 사게 되는 피해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sup>3)</sup>에서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을 상담하고 조정해 주고,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함을

3)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s://crossborder.kca.go.kr>

인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대책<sup>4)</sup>에 따르면,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등의 세부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제품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제품을 사전에 막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해외직구의 시대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분명 소비자는 새롭고 다양한 선택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싼 가격과 화려하고 다양한 제품을 무턱대고 클릭하기보다는, 그 뒤에 숨은 위험과 제도적 장치까지 함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백화점에서 본 가격보다 직구 사이트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가 때로는 불량품이나 가짜일 수도 있고, 배송 지연으로 한 달 뒤에야 손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외직구는 단순히 싸기만 한 쇼핑이 아니라, 소비자의 똑똑한 판단이 요구되는 소비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점을 찾는 일, 그것이 앞으로 해외직구를 더 건강한 소비 문화로 만드는 열쇠일 것입니다. 

김유영 KDI 전문연구원  
ykim@kdi.re.kr

4) 국무조정실,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보도자료, 2024.5.16.

## 참고문헌

- 관세청, 「관세청, 연말 극성수기 대비 ‘해외직구 특별 통관 대책’ 시행」, 보도자료, 2024.11.7.
- 국무조정실,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보도자료, 2024.5.16.
- 연합뉴스, 「중국발 해외직구 하루 10만 개 통관… 인천세관 특송센터」, 2024.11.28.
- 조선비즈, 「해외여행 줄었는데 ‘카드 해외 사용’ 늘었다… “온라인 중국 직구 급증”」, 2025.8.26.
- 조선일보, 「“국내가 더 싸, 글로벌 호구”… 해외직구는 한국판 ‘소비자 운동’」, 2024.5.21.
- 통계청, 「e-나라지표 -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이용 및 피해 실태조사」, 2023.6.
- 한국은행, 「2025년 2분기 거주자 카드 해외사용 실적」, 보도자료, 2025.8.27.

•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만드는 <경제로 세상 읽기>는 매달 1편씩 ‘경제배움e+(econedu.go.kr)’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서술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01

다음의 해외직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모든 해외직구 상품에는 반드시 관세가 붙는다.
- ②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수입 제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 ③ 국제 특송 물량이 줄어들수록 건당 배송비가 감소한다.
- ④ 상품 다양성은 해외직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⑤ 환율이 높아질수록 해외직구는 감소한다.

## 02

다음 중 해외직구 물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소액 구매 시 관세 면제 혜택
- ② 단순화된 유통 구조
- ③ 규모의 경제에 따른 배송비 절감
- ④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
- ⑤ 직구 사이트에서의 저렴한 판매

## 03

환율과 해외직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직구가 유리해진다.
- ②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직구가 불리해진다.
- ③ 환율은 해외직구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해외직구 시 원화로 결제하는 금액은 환율에 좌우된다.
- ⑤ 최근의 해외직구 규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환율이다.

## 04

‘규모의 경제’가 해외직구에 적용되는 사례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환율이 올라 소비자가 더 많은 물건을 사게 되는 현상
- ② 직구 사이트에서 상품 종류가 다양해지는 현상
- ③ 관세가 모든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
- ④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현상
- ⑤ 택배 회사가 직구 물량이 늘어날수록 건당 배송비를 줄일 수 있는 현상

## 05

다음 중 해외직구의 위험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배송 지연
- ② 반품의 어려움
- ③ 가격 변동
- ④ 가짜 상품 구매
- ⑤ 제품의 안전성 문제

## 06

다음 중 가장 현명한 해외직구를 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 ① 영인: 9살 동생을 위해 해외직구로 아동용 온열팩을 저렴한 가격에 샀어.
- ② 한나: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는 의약품이 있길래 친구들과 공동 구매했어.
- ③ 성록: 사고 싶었던 티셔츠가 국내 가격의 1/3밖에 안 하길래 일단 그냥 샀어.
- ④ 승휘: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희귀 피규어를 팔길래 환율을 고려해서 샀어.
- ⑤ 유영: 지난번 산 운동화가 생각보다 작았는데 반품 방법을 몰라서 그냥 뒀어.